

Seeking Jesus

(John 12:20~21)

Now there were certain Greeks among those who were going up to worship at the feast; these therefore came to Philip, who was from Bethsaida of Galilee, and began to ask him, saying, "Sir, we wish to see Jesus"

As the Jewish feast of Passover neared, some Greeks were going up to worship in Jerusalem (v. 20). These Greeks believed in Israel's God. They knew Israel's God was the real God and that all other gods were false. Even though they were not allowed inside the Temple, but instead made to worship outside the sanctuary in a special place for Gentiles, they didn't mind. They came to honor the true God. During their various visits to Jerusalem, they inquired about what was happening with the Messiah. They were really interested in the Messiah which God promised to Abraham, Jacob, David, and all the prophets in the Bible. In today's Bible verses, they approached Philip, who was from Bethsaida of Galilee. They asked him, "Sir, we wish to see Jesus" (v. 21). The desire in their heart was to see Jesus. Why? Because they had already heard much about Him. They were familiar with His name. They already believed with faith in the Messiah. They expected Him, and therefore, wanted to meet Him.

The Greeks intentions in seeing Jesus were practical. However, their overall analysis of the situation was limited, and thus, incorrect. Seeing Jesus wasn't the answer but seeking and finding Him in faith was. They knew Jesus' personality, position, character, and ministry from the stories they had heard about His healing the blind and leperous. They heard of the Samaritan woman and how a whole city had turned to believe in Him. Indeed, their hearts were eager to meet the real Messiah. That's why they came to Jerusalem and asked Philip if they could see Him. "Philip came and told Andrew; Andrew and Philip came and told Jesus" (v. 22). What a wonderful approach! First Philip, then a little closer in Andrew, and finally the request to see Jesus is made known to Jesus.

These special followers of God wanted to see, meet, and hear Jesus' sermons. They wanted to find out the heavenly secret. They wanted to discover what Jesus was teaching about the Gospel. Why? Because Jesus had shown that God's truth in this earth was grounded in Him. They already heard about Him, and they knew that only in Jerusalem could they find Him. They heard about the Baptist's confession,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They heard about John's witness, "I myself have seen, and have testified that this is the Son of God" (Jn. 1:34). Amen! They heard that Jesus had sai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ot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 (Jn. 6:35). They heard of God's will, "For this is the will of My Father, that everyone who beholds the Son and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and I Myself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Jn. 6:40).

The Greeks heard all these things about Jesus. They believed in the glory of God. God was making known His secrets in Jesus Christ,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Jn. 8:32). The Jews were questioning Jesus by saying,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have never yet been enslaved to anyone; how is that You say, 'You will become free'?" (Jn. 8:33).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everyone who commits sin is the slave of sin" (Jn. 8:34). Indeed, only the truth makes man free. Who is the truth? Only Jesus Christ. The Greeks wanted to see Jesus' unlimited power, love, and mercy. They knew that they could find the truth in Jesus. They knew He is the only mediator between God and earth,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Jn. 3:36). All these words of God were heard by the Greeks. That's why they sought Jesus.

Look at Paul. Prior to his conversion, he only believed in the Old Testament Law. He persecuted Christians until He met Jesus Christ. Then he said, "But we all, with unveiled face, beholding as in a mirror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glory to glory, just as from the Lord, the Spirit" (2 Cor. 3:18). Amen! We Christians, Paul says, behold constantly Christ's divine glory, and this beholding changes or transforms us from one degree of glory to another. Moses had to veil his face but Christ takes away the veil. What a wonderful change from Moses to Christ. At this feast of the Jews, the Greeks were seeking the Messiah. Their hearts really desired to find God's truth. They were experiencing the wonderful grace from God.

Whoever is oppressed from sin and is seeking relief, they cannot find comfort or healing from any other name or voice, but Jesus. They can't experience peace from Moses, the prophets, or even apostles. Only Jesus Christ can release humans from the bondage of sin. The Greeks hearts really thirsted, "Sir, we wish to see Jesus". Under the suffering and depression they encountered, they needed Jesus' sympathy, presence, and mercy. God's Word without Jesus Christ provided no satisfaction. All the Scriptures point to Christ. In this wonderful, wonderful desolation time, only His rod, staff, and word would make them free from the deep valley of death. He is the right Shepherd. Look at Stephen, "But being full of the Holy Spirit, he gazed intently in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he said, 'Behold, I see the heavens opened up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cts 7:55&56). Isn't that wonderful? At his dying point in life, with everyone hating him and while he was experiencing severe suffering and persecution, he had a most wonderful, wonderful, and glorious expression. His face was like an angel that showed something no actor could imitate. He went to Jesus, the only One. What a wonderful thing. When he went to Jesus the heavenly door was opened and God's kingdom was visible. Jesus his Savior was waiting for him.

My dear friend, are you a sinner? Seek the Lamb of God. Only He is the One who is a Savior. Truly seek Jesus in obedience, honor, and through God's great love. He is the author of true faith. What happiness the Greeks found in seeking Jesus, "Sir, we wish to see Jesus." The Israelites were born in Jerusalem and heard all about the Bible, but they didn't stay and accept Jesus. They crucified Him. These Gentiles only knew a little, but they desired to know more. They came to Jesus' disciple, and then they came to Jesus. My dear friend, God loves you. He gave you His only begotten Son. He wants to give you eternal life and love through Jesus Christ. Come to see Jesus. Heaven will open up, angels will come down, and Jesus will welcome you. What glory, love, and mercy! Be humble. Confess your sins. Be a true believer that practices faith. Amen! 🙏



김선권 목사

예수를 뵈옵고자

(요 12:20~21)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는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를 만나고 싶어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헬라인 몇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20절). 이 헬라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참되신 하나님이며, 다른 모든 신은 허튼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소 밖에 특별히 마련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조건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처자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그 헬라인들은 메시아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다윗,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해 정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갈릴리 지역의 벳새다라는 동네에서 온 빌립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21절). 그들의 품고 있는 소원은 예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매우 친숙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를 만나고 싶어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한 실천

예수에 대해 알아보려는 그 헬라인들의 의지는 실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들의 전반적인 이해는 제한적이어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보는 것 자체가 해답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의 관한 일들, 즉 예수께서 눈먼 자와 나병환자를 고치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의 개성과 처치와 성격과 그 하는 일에 대해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 전제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들의 마음은 참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열정으로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빌립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던 이유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네”(22절).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놀라운 절기입니까? 우선은 빌립에게 말했고,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들의 요청은 예수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함

이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보고, 만나며, 예수의 설교를 듣고 싶어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고 싶어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에 대하여 깨닫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에게 기초한 것임을 세상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해 들었고,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제 요한의 고백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또한 사도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나니”(요 1:34).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만일 막 내에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요 6:40).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음

이 헬라인들은 예수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놀라운 비밀을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요 8:33).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 8:34). 참으로, 오직 진리만이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헬라인은 예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보고 싶어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하나님께 이 모든 말씀이 헬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찾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회심하기 전, 그는 단지 구약의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꾀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이러한 시선은 우리를 타락한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존재로 바꾸거나 변화시킵니다. 모세는 그의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도는 수건을 벗어 던지었습니다. 모세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렇게 유대인의 철기에 헬라인들은 매료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가다리시는 주 예수

이 세상에 사는 이들은 누구든지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까닭에 종교를 추구하지만, 결코 어떤 다른 이름이나 음성으로부터 위로와 고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서는 참된 위로와 새롭게 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나 선지자, 심지어 사도들로부터도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멍에로부터 인간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헬라인들의 마음은 정말로 급급하였고, 그래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통과 억압 아래에서 그들은 부딪혔고, 예수의 동정과 입애와 자비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족함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순간에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리고 말씀은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주는 올바른 목자이십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행 7:55,56).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나다. 하지만 성경은 스데반의 모습을 놀랍고 영광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는데, 어떤 배우도 흉내 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께 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예수께 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구레주이신 예수께서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 예수께 나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양을 찾으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신 주께주이십니다. 진실로 순종과 존경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는 참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 헬라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행복을 발견했습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성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머물지도 않았고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나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알고 있을 뿐이었지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제자들을 찾아왔고, 마침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생과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십니다. 예수께 회개하십시오. 하늘이 열릴 것이며, 천사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언제나 커다란 영광과 사랑과 자비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아멘!

앞으로 다섯 주 동안, 아프리카 R국에서 단기선교사로서 생활하며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R국 이야기-하나

권 요 셴 (평신도 단기선교사)



아프리카 R국 산간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언어혼란을 거의 마칠 즈음, '마틴'이라는 현지인 목사님과 함께 r지역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신실한 무슬림인 22살의 청년 오마르와 동행하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코란 교육을 받아왔다고만 대답하던 친구 오마르. 처음으로 만난 순수한 무슬림이라 저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태도를 보아,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이번 여행에 함께한 것도 그 한 순간이라도 더 교회에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마틴 목사님이 동행한 것은 오마르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현지인을 통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유별났던 마틴 목사님은 역시 틀림 때마디 오마르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역시 웃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크리스천들의 친절함에 감동 받았다는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마르가 복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r지역에, 무슬림도 크리스천도 아닌 우상 숭배 가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마틴 목사는 오마르

와 함께 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복음을 오마르보다 결코 개종기도를 받았습니. 이를 본 오마르는 알 수 없는 어떤 감동과 희열을 느꼈고, 자신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했습니다. 마틴도 다 소나 놀라는 듯 했으나 때를 놓칠 새라 오마르와 함께 개종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틴이 기도를 하면 오마르도 따라 기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오며'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오며'

'이젠 무슬림이 아닌 크리스천으로서'

.....

'부리 그는 무슬림이어서 그런지 오마르는 이 대목에서 말을 이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모함메드와 예수를 다 믿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마틴이 반응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자 오마르는 마지못해 마틴을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이해한 복음은 오직 예수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모두 받아들이는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내게 다시 찾아와 자기가 개종기 도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참으로 많이도 고민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무슬림으로 때마디 굶은 가족들, 무슬림 가정의 무슬림 약혼녀, 주로 무슬림 중심인 일들,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슬림이었습니다. 어디 한 생명 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마르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무슬림이었던 오마르가 어떻게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까?

선교사 동행

그 동안 아프리카 R국에서 헌신한 선교사들이(정호진, 강기봉, 권영일, 추은희, 권요셉) 지난 달 말에 모두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잘 알듯이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안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접 관련된 미국선교사들은 대부분 철수하였고 타선교단체와 교회에서도 철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단기적으로 종류별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지속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선교의 비전인 총선교회와 함께 일하며, 아프리카 기타 각국에서 복음의 열매 더욱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활짝 열리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주시길 더욱.

선교사 이야기

개신교의 선교역사

16세기, 가톨릭 교회가 해외선교에 박차를 가한 반면에 개신교회는 해외선교에 천신만무한 저항을 나타내며 선교적 여유도 없었다. 왜냐하면 첫째 당시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정통교로 지칭, 군사적, 교리적 공세를 아나고 유럽에서의 반파를 아전후각에 급급했고, 둘째 개신교도가 해외선교의 기회를 주기도 어려웠고 안전한 여행을 하기도 힘들었으며, 셋째 가톨릭교회와 해외선교를 추진할 만한 강력한 선교단체나 기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해외선교에 대한 개신교의 신학적 이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때부터 터지는 '최계의 정박성'만을 간파했을 뿐, 지상 생명의 책임은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었다며 해외선교의 중요성을 간파하였다.

17세기기에 이르러 개신교의 선교활동이 확립을 띠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선교의 무리화 된 것은 18세기기에 이르러서다. 유럽교회의 전통적인 사역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의 비움에도 불구하고 확신 안에서 선교사역을 계속해 나갔다. 이들로 인해 시작된 '데마크-함에 선교회'는 초기에 훌륭한 선교적 업적을 남겼지만, 정적 북유럽권에 대한 영적의 사각지로 쇠퇴하였다. 그럼에도 이 단적인 영향을 받은 새로운 선교단체가 나타났다. 진젠드르프 백작의 주도 아래서 일어난 '모라비아 형제회'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으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재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에게 선교소(지비관선교)를 권장했고, 이들은 모두 선교사역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생계에 종사하거나 직업을 했다. 당국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던 이들은 1660의 비록, 즉 60명의 교인 중 한 사람을 해외선교사로 파송했다. 모라비아 선교사들은 장사를 하거나 남긴 돈으로 현지인들의 필수품을 제공하기도 했고, 그 지역의 생산활동을 구대화하는 것까지 추진했다.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선교사들의 학창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그 결과 모라비아 안도는 18세기의 선교를 주도할 수 있었다.

'모라비아인들이 남긴 최대의 공헌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화를 하고 선교사의 일을 해야만 하는 교훈을 주었다'라는 것이다. 모라비아인들이 했던 선교사역을 장 연구해 보면 선교교, 교사, 의사뿐만 아니라 사탕가도 복음으로 세계로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원리인 데크-

세계관 ③

올바른 세계관

세계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그것은 다 다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관이란 것이 통일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질이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을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다르지만 절대적 진리에 기초한 세계관은 존재한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에 근거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절대적 진리에 근거한 세계관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올바른 세계관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준다. 21c를 사는 사람들을 보라. 역사상이 시대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는 없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과 저마다 주장하는 이론들로 가득한 세상이다. 어느 학자는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은 모두가 다 정신병자라고 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살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언제나 같은 질문에 시달린다. "무엇을?", "어떻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것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능동적이고 자신있고 살아간다. 능동적이란 내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 알지 못하는 것에는 더듬거리고 머뭇거리는 것이 인간의 생리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은 계획을 할 수 있고 조절을 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능동적인 삶이다. 세상과 인간이 어떤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있고 세상을 대한다.

셋째, 올바른 세계관은 삶을 일관성 있게 한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지 말라"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위한 말이다. 사람들의 품 중의 하나가 '될 하러서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다. 삶이 일관성이 있다면 이런 허무한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세계관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에 대한 답이 있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지게끔 만든다.

그렇다면 올바른 세계관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해보자. (다음주에 계속)

(안창희 목사)

하나님 앞에서 싱글~빙글~♪

이 록 회 (고등부2학년)

나는 지금 학생회 서기와 친구부장으로 고등부를 섬기고 있다.

친교시간에는 생일 축하와 새친구·옛친구(장기결석자) 환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에는 '그리 어렵지 않겠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일을 하면서 보니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주일 전날 밤에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지만, 학생들의 무반응 때문에 시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한 실수로 인해 당황하기도 한다.

몇 주 전 친교시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느 때와 다름없었다. 크게 상심하고 있던 나에게 어느 선생님께서 "오늘 친교 잘 했어. 그런데 목회가 앞에서 하는 게 고등부 앞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생각 해 봐. 고등부 자체들이 아무리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화를 보고 계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계시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내가 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합동어요, 도와주세요!"하며 대답했던 적이 있는가? 불만만 터트리지는 않았는가? 그것은 나와 주님만이 아닐 것이다.

그 후 난 많이 회개하였다. 여전히 주일 전날 받은 친교준비로 바쁘지만, 친교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진행하는 영의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가 이제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되었다.

(그때대로!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싱글빙글 같이 해요~! 알았죠? 후훗...)

“너 크리스천 맞아?”

유 병 구 (고등부교사)

지난 청지기 훈련 때의 일이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양역에서 내려 한강시민공원을 가로지르며 걷고 있는데, 낯익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물레 솜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바로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후배들이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나에게 “우리 재들에게 가서 담배피우지 말라고 충고하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지런히 걸으며 청지기 훈련 당시 맞추어져서 빠듯했던 나로서는 말과 그들과 무슨 상관이나며 그냥 모른 척하고 옆을 지나쳤다. 그러나 내 친구는 기어코 그들에게 가서 학생이 담배피워서 되느냐고 충고했다. 교복을 입고 있을 땐 자기의 행동으로 인하여 학교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에 대해 조언해주며, 학생 시절에 흡연을 비롯하여 멀리 할 것들을 그들에게 일러 주었다. 그때까지도 난 시계를 보며 청지기 훈련에 늦었던 생각만 했었고, 그 고등학생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과 헤어진 후 친구에게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며 시간 지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 때 친구가 웃으면서 농담만 전담반으로 나에게 던진 한 마디는 머리를 땅치로 한 대 얻어 맞은 것처럼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너 크리스천 맞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이 생각났다. 강도만난 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쳤으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고 돌봐주었다는 그 말씀.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다. 나에게 참 이웃은 누구란 말인가?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내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 없는데 너무도 부끄러웠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려 한다면 바로 옆에서 영적으로 메달라 있는 영혼을 외면하는 나의 모습. 교회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애대해 기다리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면서도 정작 나는 그러한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된 청지기 훈련에서 롬12:12를 말씀해 읽으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이는 너희의 드림 영적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 이 모두를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영적으로 메달라 있는 영혼을 외면하면서 청지기 훈련에만 참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기에... 고등부 선생이면서 고등학생들의 모습에 무관심했던 나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소홀했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깊은 회개와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훈련이라면 아무리 받아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일을 계기로, 말씀의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길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오 용 진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경거하는 자가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의 규칙을 우선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용사를 살아 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있는 이 세상을 대해서 먼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해 가시는 이유는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창조 질서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잠시 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오늘날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창조 본연의 모습을 완성시키려하신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시대를 통해 일하신다. 어떻게 보면 민족을 들어서 일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인해 오히려 그 일은 로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많은 로마 황제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으며, 마침내 313년에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되었다. 심지어 395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고 그 후 유럽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뿔어나가게 되었다. 최근까지는 미국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으나 지금은 한국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은 일기가 있는 말인데, 현재 세계적인 선교 기구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국 학생이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만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유럽의 여러 나라를 비롯 미국이나 로마처럼 그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강성하게 만드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강령한 이야기를 늘어 놓았으나 결론은 이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과 상관 없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과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하여 외와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주역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만평

글·그림·김범현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칼빈

가장 어려운 수업

칼빈은 루터보다 한 세대 늦게 1509년에 태어났다. 루터가 시작한 개혁에 체계를 잡는 사람이 주어졌던 모양이다. 그는 처음에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칼빈이 19세가 되었을 때, 그의 부친은 그를 법률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학교를 옮겼다.

3년 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칼빈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전과 같이 신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법률공부는 더욱 귀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인문주의 학자가 되어서 평생을 보내기로 작정하였고, 곧 그 분야에서 인류학자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20대 초반에 저명인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이었다. 한 사건의 범인으로 수배되어 도망자가 되고 만 것이다. 이후로 그는 평생 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고 체질에 맞지 않는 풍운아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평생을 통해 대단히 힘든 신앙공부를 하고 있었다. 즉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자신의 앞길을 얼마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복종이란 가장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한다는 이 신앙 과목은 그가 평생을 통해 배울 내용이었다.

여러 저작 속에 단편적으로 나타난 그의 중생은 19세부터 26세 사이에 일어났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된 그것이다"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수업이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였다 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은밀한 심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자신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점을 깨닫는다.

"나는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보았습니다. 내가 빠져있는 이 비참한 상태를 볼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나는 한시도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시에 지시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완악이 통곡하며 나의 과거를 저주하면서 나는 떠났습니다."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였다. 그도 사람이고 육신적인 욕망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고 무서운 눈으로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그는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하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의 경외심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으로 나타났다. 귀족의 풍채와 깊은 학식과 재능은 언제든 그에게 육신의 부귀장명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것을 포기했다. 그리고는 평생을 통해서 복종의 어려운 과정을 공부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평생 복종의 수업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받았다. 그는 참으로 복종하는 이였다.

(김기홍의 '천국의 기둥'에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황 정 옥' 형제를 소개합니다

군 제대 후 휴학 중입니다. 어릴 때 잠시 교회에 다녔고, 군 복무 중에도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자 친구의 전도로 충현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지 못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심을 항상 느낍니다. 새가족부 집회를 통해서 조금씩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쁘고, 담임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가 기억에 남습니다.

'김 경 선' 자매를 소개합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잠시 쉬면서 재충전 중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요를 느꼈던 중 남자 친구의 권유와 카톨릭 신자이신 부모님의 허락으로 충현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교회 분위기에 점점 적응하면서 마음이 열렸고,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소개시간에 모르는 분들로부터 진심어린 환영을 받은 것이 기쁘고 기억에 남습니다.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속 새가족부 통신원

+ 양요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내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 107:19-20)

5교구 한장자 성도(여64세) 혈소관 감소증(피가 마르는 질환)으로 자가 치료 중입니다. 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5교구 김대환 집사(남60세) 간암 후기 병증 식이요법으로 다소 호전되었습니다. 마음에 힘을 얻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우들과 가족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주일 전승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아라뱀라 캐더린 행기는 은행가의 딸이었는데 18세 때부터 여정원을 대상으로, 그 후에는 동일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했던 믿음이 좋은 사립이었다. 또 두병 중에서 조금씩 회복되자 '옛날 옛날 이야기'라는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1부는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소재목으로 4행 8연으로 되어있고, 2부는 '들리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50연으로 되어있는데 이 시에 감동받은 윌리엄 허워드 도슨이 이 시의 1부에서 4개 절을 택하여 1867년 작곡하였다.

그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1절 오랜 옛날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영광과 사랑에 관하여 전하여 주고, 악하고 끈고하며 무기력하고 더럽혔었으니 어린 아이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세요.
- 후렴 오랜 옛날 이야기, 예수님과 그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 해 주세요.
- 2절 놀라운 구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등에 대해서 잘 알아듣게 말해 주세요.
- 3절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려 오셨다는 사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늘 듣기 원합니다.
- 4절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좇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주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 주세요.

간절하면서도 너무 크지 않게 불러야 할 것이며, 말씀에 깊이 청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불러야 한다.

(찬양위원회)

나의 그리스도의 헌신



긴/급/연/락

언뜻 서처가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11:00. 원고 정리로 바쁜 오전 시간. 평소 잘 울리지 않던 내 핸드폰이 "문자가 왔어요" 하며 나를 열심히 불러댄다. 누군가 하는 기대감에 내용을 읽어보았다.

"12시에 000자매를 전도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친구의 급한 자매부탁이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 자매를 전도할 예정인가보다. 항상 여러 방법에도 복음을 전하는 친구의 긴급 연락에 받고, 잠시 책상에 앉아 전도하려는 친구의 마음과 전도 받을 자매의 마음을 떠올려보았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렘 18:23). 말씀은 생각보다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다. '친구의 입을 주님이 주강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게 해 주세요.' 복음을 들을 자매가 격정되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방백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을까? 점심시간에 전도할 텐데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했다.

점심을 먹고 편집실로 올라와 느긋하게 차 한잔을 마시며 누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13:05. 또다시 빨리 와보라는 핸드폰의 '빕빕' 소리가 들렸다.

"00자매가 그리스도께 영접했고, 양육 약속을 받았습니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읽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나도 동참할 수 있음이 참 감사했다.

오늘은 핸드폰의 기계음이 정말 아름답게 들린다.

이종원 기자

사랑을 주고 받는 곳, 사랑방

김 한바로 (사랑부 교사)



사진 오른쪽에서 첫번째까지 김 한바로 선생님

우리 사랑부는 정신지체, 자폐, 정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부에서 봉사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나와 너무나 틀리고 다른 모습을 가진 장애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봉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개월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부 학생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대의 모습과, 사랑부 가족들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 말씀에 열정적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모습,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순순함으로 가득차 있는 이분들의 모습은 부족한 제가 배우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기 전, 사랑부 교사들은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

회를 마칠 때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자"란 구호를 외치며 주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부의 학생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향해 뛰어오면, 저는 기도와 때 외치던 구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껴안고, 살을 맞닿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사랑에 흠뻑 젖습니다. 처음에 저는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막연히 사랑을 주려는 마음만 앞섰던 저에게, 하나님은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의 기쁨이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성숙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십니다.

주님 예비하신 길

강 민 아 (예배다부)



먼저 저를 포함한 선발대 3명이 양평으로 출발하였고, 나머지 일행 12명이 청량리역에서 밤 9시에 출발하여 10시에 도착하여 합류하였습니다. 마지막 일행으로 두 명의 형제가 뒤늦게 와서 모두 17명의 지체가 2001년 예배다부 청년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예배다부 청년회장의 사회와 부회장의 기도, 성경말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곧 이어서 교회와 예배다부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다부 청년모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개인 기도제목을 나누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식사와 기도를 마치고 양수로 출발하였습니다. 출발할 때와는 달리 처음 가는 여정이 평탄하지만 않았습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탓에 양수리에 위치한 목적지에 가려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다.

비스에서 만난 장로님, 약국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전화해주신 약사 선생님, 비스를 기다리면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비스 기사 아저씨께 특별한 부탁까지 해주신 경찰 아저

씨, 마을 버스 안에서 저희가 내릴 곳을 버스 기사 아저씨께 알려준 예쁜 아가씨, 특히 서울로 돌아올 때 저희를 양수리에서부터 서울까지 교회 순회로 데려다 주신 베데스다 교회 목사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우려곡절 끝에 도착한 양수리에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예배다부 청년 수련회에 대한 평가회를 가지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인해 어디서든지 저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다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값진 수련회를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존중하며 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예배다부 청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리의 새

호세아(Hosea)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호세아서를 읽으시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또는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애깊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인하여 민족적인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짐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의 주제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신 6:5).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과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신앙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으며, 회복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선지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각을 적용시키시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를 읽으실 때에는 먼저 성경적인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열왕기하 15장~17장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멸망을 향해 치닫는 북이스라엘 여섯 왕들의 시대에 활동하였는데(스기라에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그 시대는 우상숭배와 불안정한 왕권, 그리고 성적타락으로 치달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간음에 빠진 백성들은 육체적인 타락에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지적하시려고 호세아를 용원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시대의 위장수위는 극에 달했음을 알리십니다. 국외적으로도 우수무례에 의해 위협받고, 국내적으로는 깊은 타락에 젖어 있는 북이스라엘!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은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음 주 계속)

(김동호 목사·출판국 지도)

Catechism

3. 하나님과 성(聖) 삼위일체(三位一體)에 관하여

(1) 하나님의 속성과 절대주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셨는데 이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어떠한 하나님일지나 성품을 필요로 있습니다.

물음 1. 우리가 믿고 성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①가독하신 하나님이십니다(창 1:15-16). 또한 하나님은 ②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창 42:2; 대산 28:9). 하나님은 ③공의와 하나님입니다(느 9:33), ④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요 4:7-8). 그 밖의 특징으로는 하나님은 ⑤온 우주를 주관하시며(시 139:7-10), 또한 ⑥영원하신 분이십니다(시 90:2).

물음 2.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창 1:11).

물음 3.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대주권을 가지실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이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롬 11:16).

(2) 성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로 계시는 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나 그 본질과 능력이 같고 시며, 아시는 바와 뜻하시는 바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음 1. 창세기 1:26과 3:22에서 성삼위일체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성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임이 되었으니(창 3:22).

물음 2.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칭호를 쓰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사 9:6; 롬 9:5; 요 1:20)

성경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며 또한 하나님, 즉 참 하나님이 라고도 합니다.

물음 3.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음 4. 성경은 성령님에 대하여 누구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함입니다.(롬 8:9)

(오른진 전도사·고등부 부지)

교 회 소 식

알림

1. 2001년도 제5차 학술·세례식 안내
2001년도 제 5차 학술·세례식이 28일에 있습니다.
학술 및 세례·입교·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14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전로 협의회서기도회
일시: 8월(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일서기도회
일시: 9월(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전임위원회 지휘자·반주자 회의
일시: 오는 한양예배 후
장소: 찬양위원회실
4. 감사위원회 차례회
일시: 오는 15:30
장소: 제1교육관 208호
5. 14교구(나) 연합 노방전도회
일시: 13일(토) 15:00~17:00
장소: 10원역 1반주자 매소소 앞
6. 연합전도회 차례회
일시: 14일(다)요일 15:00
장소: 배후기홀
7. 경향전도회 영성훈련
일시: 19일(금) 22:00~20일(토) 14:00
장소: 출향교회
8. 아미리교회 차례회
일시: 오는 15:30
장소: 유아부실(교육관 212호)
9. 권사회 차례회
일시: 10월(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10. 아미리전도회 차례회 및 영성훈련
일시: 10월 18일(목)

남녀 전도회

1. 바울 6교회 차례회
일시: 14일(다)요일 15:00
장소: 교육관 407호
2. 바울 17교회 차례회
일시: 13일(토) 17:00
장소: 광주 클로리아(☎331-762-2571)
3. 베드로 1교회 차례회
일시: 13일(토) 19:00
장소: 교육관 109호(다)요일(반주자)
4. 베드로 7교회 차례회
일시: 9월(목) 09:00 출발
장소: 기도실
5. 루디아 7교회 일련회
일시: 9월(화) 12:00
장소: 보훈병원
6. 아미리 4교회 차례회
일시: 9월(목) 10:30
장소: 우석당 회장실(☎594-3149)

발세

1. 남기전 성도
(양한) 집사 모인, 이규수 집사의 시로, 12교구 방한
구약) 9월 30일 발세, 10월 2일 장례

주소변경

1. 김광구 장로, 이삼금 권사
용인시 구산면 마하리 2045 경향마을 산호곡105-603
☎302-4895, 718-2144

제1기 평신도 단기 선교사 모집

지침자: 장로 LMC(수원), 13기 과정 중에 있는 자
파송시기: 2001년 하반기~2002년 상반기
파송국가: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몽골
문의전화: 신원교회(☎67-9544, gwn@unet.or.kr)

이미용 전도회 봉사자 모집

문의: 조순원 부회장(☎2-814-4881)

고흥부방선교회 교사모집

자력: 25세 이상, 세례교인 문의: 016-202-0068

전임위원회 인사모집

자력: 출향교회 세례교인으로서
합류서를 제출한 자
문의: 나연성(☎299) / 찬양감독 011-212-1429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786	한준희	12	청년1부	김명자(12)	789	도은영	19	청년1부	
787	이재복	4	베드로		790	구형철	19	베드로	종은숙(19)
788	박유진	19	대학부	박해상(5)	791	김진영	14	마리아	

★ 출향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5차 학술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술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0월 14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정현인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서광진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론 (정해성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10월 2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준경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란? (김태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란? (이종성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육관 314호	문답	교육관 307호		
10월 28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분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		

요한전도회 연합제대대회

출현에 속한 요한전도회원 전제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함을 확인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회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일시: 13일(토) 토요일 14:30~19:00
장소: 현대교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6번출구 현대백화점 방화점, 500m 우측)
대상: 전 교구 요한전도회원 전제
준비물: 문갑, 문갑, 모자, 돗자리



예배 안내

주요 예배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40	본당
IV	오전 12:00 (다)요일(반주자)	본당
V	오전 3:00	본당
	오전 4:30 (다)요일(반주자)	본당
주 오 목 회	오전 11:00 (다)요일 7:00	본당
금 오 목 회	오전 7:00	본당
세례기도회	오전 3:00	본당

결론

1. 김광수 군(경북대) 목사, 변성자 사모의 아들, 사방의 교회와 대학의 담임(사) 목사, 이항진 집사의 딸, 4교구) 11월(목) 12:30 사방의 교회
2. 박태진 군(순천대) 권사의 아들, 9교구)와 이희영 양 (이두한 씨, 김광준 씨의 딸, 19교구) 13일(토) 13:00 갈릴리
3. 백두호 군(대경학 석사, 박명진 씨의 아들)과 나혜애 양 (나상영 집사, 박복순 집사의 딸, 7교구) 13일(토) 14:00 광동병원문과 앞 3층 유리복

에바다부 차량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에바다부 주일 학생예배(오전 9시~11시30분)에 출석하시는 성도들 참여할 수 있는 학생수송을 맡아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교회	일	출발시간	소요시간	비고
교회-성도회	오전 7:10	1시간		
성도회-교회	오전 8:00	1시간		
교회-성도회	오전 12:30	1시간30분		3부예배 참석후 봉사가능
성도회-교회				

※ 운행차량: 교회 순회차(1인승)

※ 문의: 에바다부 교사실(교육관 109호, ☎416), 이강진 집사(011-257-0919)

6교구 대안자 초청 전도전지

지금 당신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귀한 당신을 정성과 정열로 대해 초대합니다.

일시: 10월 13(토) 17:00 장소: 만나홀

2001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금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부서의 회계는 아래와 같이 감사자료로 준비하여 10~11월 중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안기간: 2001년 1월~9월
2. 대안기간: 각 위원회 산하 전 부서
단, 남녀 각 전도회는 제외
(단, 경찰·교정·실업인·이민·학원 등 특수 전도회는 본 감사를 수할 것)
3. 제출서류: 시·산전(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제시산표), 금전출납부, 장감,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자 현금 또는 예금통장잔고 포함
4. 감사실시기간: 2001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주말까지
5. 감사실시장소: 제1교구(208호) 감사위원회실(☎54)

남녀전도회 영성훈련

일시: 11월(목) 19:00
장소: 갈릴리(출판) / 54부대 만나홀에서 식사
참석대상: 각 전도회 회장, 부회장, 사자, 사기, 전도부장

장년부, 10월은 중동명의 달

일시: 10월 한달 동안 매주 12:30
장소: 교육관 307호

충헌 증보의창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②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에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헌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출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 · 기 · 능 · 분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철 신교대원 기초부장	조순근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은호 성경연구부장 기초부장	노광현 영적지도 기초부장
오진규 기초부장 기초부장	이병환 신교대원 기초부장	윤인철 신교대원 기초부장	최대원 신교대원 기초부장
엄필성 신교대원 기초부장	강도용 신교대원 기초부장	오정현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 훈 신교대원 기초부장
남순우 신교대원 기초부장	사동석 신교대원 기초부장	정운석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영길 신교대원 기초부장
문종우 신교대원 기초부장	조인재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종구 신교대원 기초부장	최무진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현태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창호 신교대원 기초부장	차신득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재명 신교대원 기초부장
박명식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강남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종식 신교대원 기초부장	윤성철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형만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민권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병욱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병욱 신교대원 기초부장
안종욱 신교대원 기초부장	최명환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종섭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종섭 신교대원 기초부장
최기홍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강재 신교대원 기초부장	전종용 신교대원 기초부장	전종용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정우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단우 신교대원 기초부장	황원일 신교대원 기초부장	신 철 신교대원 기초부장
한승규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영수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환기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환기 신교대원 기초부장
유용철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형수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정식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정식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정현 신교대원 기초부장	최윤덕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계인 신교대원 기초부장	박덕영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태식 신교대원 기초부장	정대우 신교대원 기초부장	박종규 신교대원 기초부장	권영욱 신교대원 기초부장
조종환 신교대원 기초부장	배준식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영달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철호 신교대원 기초부장
박갑성 신교대원 기초부장			

■ 부목사

이종성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종대 신교대원 기초부장	정현민 신교대원 기초부장	차병준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병태 신교대원 기초부장	서광진 신교대원 기초부장	정해성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종정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성기 신교대원 기초부장	류병희 신교대원 기초부장	노경록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종철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국근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종성 신교대원 기초부장	송길환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수근 신교대원 기초부장
안창덕 신교대원 기초부장	방준영 신교대원 기초부장	나광영 신교대원 기초부장	정진호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성호 신교대원 기초부장	고광환 신교대원 기초부장	신성식 신교대원 기초부장	

■ 찬양감독 김영구

■ 기도사 정기 간담회

■ 어전도시

정현민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정자 신교대원 기초부장	송창자 신교대원 기초부장	신동자 신교대원 기초부장	윤인철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득욱 신교대원 기초부장	한영준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민식 신교대원 기초부장	홍은자 신교대원 기초부장	이옥주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자라 신교대원 기초부장	안태순 신교대원 기초부장	최효식 신교대원 기초부장	백명자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정현 신교대원 기초부장
조국자 신교대원 기초부장	강덕철 신교대원 기초부장	김정식 신교대원 기초부장	장재우 신교대원 기초부장	최문실 신교대원 기초부장

■ 고령전도사 박영덕

■ 신교사 이소영, 최은아

이명하, 김서정, 정현주
신교대원
기초부장

■ 협력선교사 하효섭 (이명하)